

초원과 태양의찬가

목장개설편 (1회)

국토개발 연구원
연구원 원 증 의

우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완벽한 영양식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효능이 인정되고 있으며 한 나라에서 우유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또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우유를 많이 마시고 우유를 만든 가공식품을 얼마나 소비하는가는 '잘사는 나라'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값싸고 질좋은 우유와 우유가공식품을 만들어 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일하고 있다.

그런 여러 사람들이 고생과 일하는 보람, 그리고 한잔의 우유와 한 조각의 치즈를 먹게 되기까지의 과정 등 우유산업의 시초에서 끝까지, 즉 목장에서 소비자까지의 여러가지 희비 애락을 엮어 우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호부터 "초원의 태양의 찬가"를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제 2의 인생출발

김정수씨가 목장을 경영해 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30대 초부터의 꿈이었다.

간혹 지방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기차나 버스의 차창 밖으로 보이는 빨간 뽕죽지붕의 사이로, 그 옆에 서 있는 목장주의 집, 그리고 풀밭에서 유유히 풀을 뜯고 있는 젖소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목장을 한번..."하는 것이 어느 사이 젊은 날의 꿈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림에 나오는 유럽의 목장 풍경을 보고는 "나도 저런 목장으로 키워 가겠다"는 다짐을 되풀이 했다.

그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틈만 있으면 서울 근교의 목장을 찾아 다니며 여러가지 사실을 물어 보고 경영의 내용을 조금씩 익혀 왔다. 그러는 한편 젖소 한마리의 값이라거나 우유의 납품가격, 그리고 우유의 유통과정 등을 자기 나름대로 조사하고 그것을 기초로 경영 판단을 했다. 또 목장을 만들만한 곳의 땅값이나 사료값 등도 물론 조사했다.

이런 노력을 기우리는 한편에서 젖소 기르기에 관한 책을 구하여 틈틈히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다시 목장에 가서 확인하고 실지에서 배우는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번은 수원 근교의 어느 목장에서 40대의 목장주와 만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의 봉급생활을 그만 두고 어디 조용한 목장이나 하나 사서 좀 여유있게 살아 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대개 봉급생활 하는 분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지만 목장이란 그렇게 낭만과 고요가 깃든 곳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소를 기르는 일이고 그 소를 상대로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분들은 대개 중도에서 실패하거나 아주 힘든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가볍게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행히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다소의 소양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가지로 지도를 바랍니다.」

「말로 하기는 쉽지만 잘 생각하여 시작 하십시오. 먼저 목장을 하기 위하여 산과 땅을 사는 것 보다는 어디 만들어 놓은 목장을 세 얻어서

작해 보고 아주 본 궤도에 오른 뒤에 조금씩 크게 키워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장은 다른 경우도 그렇지만 10년은 해야 겨우 진수를 터득하게 되고 그 고비를 넘겨야 수익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최초의 5년을 잘 견디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좀 더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장이란 여생을 취미로 즐기는 그런 풍류의 직업이 아닙니다. 자연과 가축과의 공동생활이며 저기 보이는 푸른 초원과 저 높은 하늘의 태양, 그리고 사람의 끝없는 노력에 의하여 이룩 되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충고 고맙습니다. 당장 시작할 것은 아니니까 좀 더 연구 하겠습니다.」

꿈을 마낀 계곡

김정수씨가 목장을 시작하게 된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평소의 계획과 연구를 토대로한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결심을 굳히고 출발을 개촉하게 된것은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다.

그것은 김씨가 근무하던 회사가 때마침 전 경제계를 엄습한 불경기 탓으로 회사가 인원 감축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희망 퇴직자를 찾는 바람에 아주 이 기회에 17년간의 봉급생활에서 발을 빼기로 결심하여 퇴직해 버린 때문에 당초의 계획 보다 빨리 착수하게 된 것이다.

김정수씨가 회사로부터 퇴직금 외에 희망퇴직 위로금 등 상당한 몫돈을 뒀 수 있어 이것도 목장경영을 개촉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 김정수씨의 나이는 45세. 맏아들이 중학교 졸업반이고 둘째 딸이 국민학교 6학년에 개학중이었다.

그는 앞서 목장주가 충고해 준대로 우선 조그만 목장을 세 얻기로하고 사방에 정보를 구했다.

마침 서울서 춘천으로 가는 길 뒤편의 한 계곡에 초지 5ha, 축사 1동, 주택 1동을 가지고 젓소 3마리를 끼워 800만원에 전세로 나온 목장

이 있었다.

이 목장도 어느 공직자가 퇴직후의 소일거리로 만든 것이었는데 3년만에 도저히 경영이 되지 않아 손을 들고 양도하려는 것인데 통채로 살만한 임자가 나서지 않아 전세를 놓게 된것이라고 하며 조건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그는 현장을 둘러 보았다.

값아 지른듯한 험한 산이 솟아 있고 국도변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에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산의 4분의 1 가량의 경사가 완만한 곳에목장 주인용의 주택이 있고 이주택을 중심으로 젓소 10마리 정도를 수용할 축사가 있고 사료 저장용 창고가 하나 있으며 그 뒤로 산마루까지의 5ha이 나무를 베어 내고 초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곳곳에 바위가 있고 돌이 깔린 탓으로 초지로서의 조건은 좋지 않지만 그동안 전 주인이 목초 씨앗을 뿌려 좀 험하기는. 해도 방목지로 쓸 수 있는 상태였고 전체 목장의 둘레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전 주인의 말에 의하면 이만한 목장의 외곽과 건물공사 등을 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했으며 당초 5마리를 입식한 젓소가 두마리나 줄어 지금은 3마리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정수씨는 이 목장을 5년간으로 800 만원에 전세를 얻기로 결심하고 계약을 맺은 뒤 단신 이부자리와 취사도구를 꾸려 목장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하여 그의 제 2의 인생은 이 고요한 계곡에서 시작되었고 이 계곡은 그의 꿈을 담은 곳이 되었다.

목장에 달린 주택은 말만 주택이지 시멘트 부력으로 쌓아 스테이트 지붕을 이은 방 2, 부엌의 긴 모양의 간이 주택으로 가구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당초에 이 목장의 주인이 자신은 매주 한번 정도씩 둘러 보고 관리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관리인용의 간이주택이었다. 그나마 오랫동안 손질을 하지 않아 험어 있었다.

김정수씨를 따라 이삿짐을 가지고 온 그의 부인은 너무도 황량한 이 목장의 광경을 보고 기

가 막혔다.

「여보? 여기서 어떻게 지나겠어요. 당신 혼자 이 쓸쓸한 곳에서 자취를 하다니 말이나 되어요. 누구 적당한 사람을 골라 들 보는 정도로 해요」

「무슨 말이야? 손 바닥만한 목장에서 관리인 두고 월급주고 그리고서 어떻게 경영이 되겠어. 더구나 자금도 약한 처지에 하나에서 열까지 내 손으로 하지 않으면 안돼. 나는 기어히 이목장에서 성공해 보일거야. 봉급생활에서 길러진 타성을 버려야해.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시련이며 시험이며 고난의 길이야. 나는 어떻게든 훌륭한 목장주가 될 것이야.」

「그렇다고 해도 이 고생을 사서 할것이 무어예요. 다른데 투자를 하면 좀 더 편하고 쉬울터인데. 게다가 경험도 없으면서…」

「수업료야 좀 비싸게 치어겠지만 나는 확실히 갔어. 경험을 쌓아 가면서 성공하려면 남다른 각오와 노력이 필요해. 아무튼 여기 생활은 내가 꾸려 갈 것이니까 당신은 집에서 아이들이나 잘 돌보아요.」

그날 저녁 부부는 이 한적한 산골의 오막살이에서 간단한 이삿짐을 풀고 가지고 온 것으로 저녁을 지어 먹은 뒤 잠자리에 들었다.

「여보. 소는 몇마리 살 거예요?」

「글쎄, 지금 큰 소 두마리에 중소 한마리가 있으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세마리만 더 사야지. 그런데 요즘 젓소 값이 무척 올랐데. 그나마 일부 목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곳이 생겨 젓소의 수가 준데다, 소라는 것은 살아 있는 가축이니 사료값이 비싸 어려운 모양이야. 이런 때문에 소의 공급이 모자라. 또한 현상이야 목장업이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는데도 소값이 오른다니 말하자면 낙농의 스테그프레이션 현상이라고 할까. 결국 내가 이 직업에 뛰어든 것은 돈벌이만이 목적이 아니라 내 꿈을 기록해 보고 싶은 때문이야. 이런 여러가지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비롯한 집안 일은 지금까지처럼 잘 부탁하오. 고집스런 남편을 만나 당신 고생이 많겠오.」

「제 고생이야 별것 아니지만 당신이 …아무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조심하세요. 그리고 힘드는 일은 마을에서 품을 사다 하구요.…」

「아무튼 내 소가 20마리가 될 때까지는 참고 이겨 볼꺼요. 그 때까지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해 볼꺼요.」

「여보! 조심해요.」

오막살이의 고집

이렇게 해서 김정수씨의 목장은 일단 출발했고 이 때부터 시작된 그의 목장경영은 실로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다행히 시작한 철이 가을이 아니고 늦봄인 4월 하순이어서 그나마 약간의 고생은 줄일 수 있었지만 보통을 넘는 것이었다.

당장 소를 더 사 들였다.

새끼를 뺀 소 한마리와 현재 우유를 짜고 있는 소 한마리, 그리고 생후 1년된 중소 한마리 등 3마리를 75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니 목장 전세와 아울러 1,500만원 이상을 투자 했고 현재 우유를 생산하는 소가 3마리, 임신중인소 1마리 중소가 2마리 등 6마리로 늘어났고 3마리는 비교적 순조롭게 우유를 생산했으며 목장에서搾 우유는 우유조합에서 매일 실어 가는데 이 목장은 도로변에서 목장까지의 오르막길 2.5km 정도가 아직 도로를 만들지 않아 자동차가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에 우유통을 매일 도로변까지 내려다 놓아야 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 길을 리어카를 이용하여 하루 몇차례씩 왕래 해야 우유를 가져다 둔다든지 다른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다. 다른 일 보다는 이 일이 가장 어려워 국도에서 지방도로 지방도에서 목장까지의 진입로를 닦는 일이 시급했지만 그는 이 도로의 개설을 뒤로 미룬채 힘드는 리어카를 끌기를 계속했다.

조합에서 거둬간 우유는 15일마다 한번씩 대금이 지급되고 그것으로 다소의 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지만 목장은 처음부터 자꾸만 투자를 요구했다.